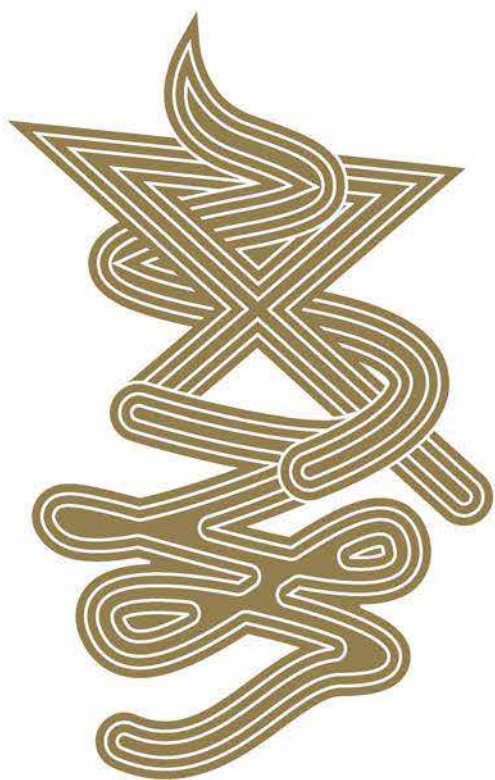




퀴젠 간첩 할 때 너

근대에
맞서는
근대

귀신 간첩 할머니

근대에
맞서는
근대

귀신 간첩 할머니 — 근대에 맞서는 근대

글쓴이

공선옥, 권현익, 김금화, 김용언, 리앙, 다지마 마사키,
문강형준, 박노자, 박찬경, 베르톨트 브레히트,
션 스나이더, 왕후이, 고이즈미 요시유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이응우, 조한혜정, 한선희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김홍희
현실문화연구 대표 김수기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 2124 8800
sema@seoul.go.kr

현실문화연구

121-887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56 2층
T. 02 393 1125 F. 02 393 1128
hyunsilbook@daum.net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기획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책임편집 : 박찬경

편집자문위원 : 길예경, 박소현(일본), 박소현(동남아시아)

편집 : 구정연

교정교열 : 현실문화연구

디자인 : 정진열

사진 : 양철모, 김중원, 홍철기

ISBN 978-89-6564-106-3 (03900)

값 15,000 원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
현실문화연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서울시립미술관 주최, 2014. 9. 2 - 11. 23) 에서는
도록을 두 편으로 나누어 출간한다.

<책1>에는 출품작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전시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

<책1>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별도 구입할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을 www.mediacityseoul.kr에서
디지털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책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에서 출간하는 두 번째 책이다. <책2>는 <책1>과
연결되면서도 비엔날레 주제를 풍부하게 확장시킨
논문, 에세이, 시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독자적인
책이다. 비엔날레의 전시 장면도 함께 실어
두 권의 책과 전시가 서로 보완하도록 하였다.

박찬경
왕후이
리앙
권현익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베르톨트 브레히트
박노자
션 스나이더
김용언
공선옥
조한혜정
이응우
다지마 마사키
고이즈미 요시유키
문강형준
김금화
한선희

귀신 간첩 할머니

근대에 맞서는 근대



현실문화

차례	9	귀신, 간첩, 할머니, 예술가의 협업 — 박찬경
	27	대상의 해방과 근대에 대한 물음 — 왕후이
주문	39	귀신, 여자 귀신, 빙의 — 리앙
	49	친근한 이방인 — 권현익
	55	나부아의 기억 — 아피찡퐁 위라세타쿤
암호	73	의심을 찬양함 — 베르톨트 브레히트
	79	또 하나의 '회색 분자', 간첩 — 박노자
	91	벨로루시에서의 불복종 — 셴 스나이더
	115	이상한 할머니들 — 김용언

방언	127	간첩처럼 숨어서 귀신처럼 기도하는 할머니 — 공선옥
	137	동트기 전의 어둠, 외롭지 않은 안티고네들 — 조한혜정
	153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 이용우
곡성	171	시작도 끝도 없다 — 다지마 마사키
	181	사건의 때 — 고이즈미 요시유키
	191	애도의 차원들 — 문강형준
	201	파경 — 김금화 (파경 해설 — 한선희)
	209	출전 및 옮긴이
	210	글쓴이 소개
	214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전시 장면



귀신, 간첩, 할머니, 예술가의 협업

| 박찬정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제목은 ‘귀신 간첩 할머니(Ghosts, Spies, and Grandmothers)’이다. 9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전 층에서 42명의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42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노재운과 호신텅(Ho Sin Tung)의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이번 <미디어시티서울>은 신기술 매체를 강조해온 이전 비엔날레와는 달리 작품과 주제의 관련성에 더 신경을 썼다. 물론 많은 개별 작품을 하나로 묶는 주제를 꼭 집어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작품은 너무 단순화되고, 어떤 작품은 그 의미가 작위적으로 읽혀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주제전’에 따르는 부담이 있지만, 실은 꼭 그렇게 위험성을 경계할 일만도 아니다. 주제는 큐레이터가 내놓은 하나의 제안이지 전시의 총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작가-큐레이터-관객이 공유해야 할 전제이기 때문이다. 주제는 작품을 평가하는 잣대나 작품을 포획하는 그물이기보다는, 작품에 묻어 있는 얼룩과 같은 것이다. 주제는 관객 입장에서 볼 때 작품을 둘러본 이후의 어떤 순간에 불현듯 만들어지는 무늬와도 같은 것이다.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이 전시의 제목이자 열쇳말 역시 마찬가지다. 귀신은 무속을 다루는 김수남과 나이토 마사토시(Naito Masatoshi)의 사진, 김인회의 비디오에서 직접 드러나는 주제다. 호신텅이 상상하는 극장에는 배우도 관객도 없는 대신, 좌석의 기이한 자동 동작이 있다. 이에 비해 바심 막디(Basim Magdy)의 묵시론적 이미지들에서 ‘유령’은 하나의 분위기나 후경에 남겨진다.

거리를 두고 전시를 보면 출품작 대부분이 '귀신'과 어떤 면에서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귀신을 '비극적 역사의 귀환'과 같은 함의가 넓은 비유로 쓸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제시 존스(Jesse Jones)와 타무라 유이치로(Tamura Yuichiro)는 유령을 역사적 이데올로기나 사건의 회귀, 또는 현대적 재구성고 결부시킨다. 이 전시는 '귀신'을 아시아 종교문화로도 다루지만, 반복해서 돌아오는 뼈저린 고통과 실패의 기억이라는 뜻으로도 읽어볼 수 있다. 전시 전체를 통해 20세기 유토피아 사상이나 근대화 기획의 실패가 회고되는데, 작가들은 이런 실패를 양가적인 가치로 해석한다.

제시 존스와 리나 셀란더(Lina Selander)의 작품에서 사회주의의 기억은 쓸쓸하게 연주되는 <인터내셔널가(The Internationale)>나 체르노빌의 대재앙만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공동체에 대한 급진적인 시도가 봉쇄되고 이렇다 할 혁명적 저항을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에 대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셴 스나이더(Sean Snyder)의 <전람회(Exhibition)>에서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열린 멕시코 현대미술 전시회의 선전영화를 재편집하면서, 당시 소비에트 프로파간다의 뜨거운 정치적 의지를 텅 빈 행위로 보이도록 그 과잉 메시지를 비워낸다. 그러나 당시 '예술과 인민 생활'의 직접적인 결합은 오히려 오늘날 현대미술 전시회가 잃어버린 소통, 활력, 계몽의 가치 등과 가파르게 대조된다. 작가들이 불러온 '유령-이미지'들은 근대화 기획의 실패만이 아니라 그 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꿈과 열정을 하나의 숨겨놓은 패처럼 슬그머니 내어놓는다.

'귀신'은 아시아의 전통 종교문화를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하다. 아시아는 불교, 유교, 무속, 도교, 힌두교의 발원지이자 그 종교적 영향이 여전히 깊은 곳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아시아 현대미술에서 전통(종교문화)의 수용은 주로 형식주의나 오리엔탈리즘, 민족주의와 주로 결부돼왔다. 덕분에 제의(祭儀), 신화, 우주관(cosmology), 민담 등 오래된 인류학적 판형들을, 현대가 당면한 심각한 이슈에 조응시키는 미술 언어의 개발은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지체된 느낌이다.



제시 존스 Jesse Jones / 유령과 영역 *The Spectre and the Sphere*, 2008



셴 스나이더 Sean Snyder / 전람회 *Exhibition*, 2008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아시아에서도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주춤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통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이그조티시즘이 제도나 시장에서 반복해 성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걱정이기도 한)로 연결되기도 한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동시대 아시아 미술에서 식어버린 지역 전통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키려 했다. 그러한 부활은 어떤 대답성을 필요로 하며,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는 그 대답성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드러내려 했다. 즉,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탈오리엔탈리즘' 만이 아니라 동/서양 거울의 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다. 오리엔탈리즘의 탈신화화나 '전통'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은 그 자체로 옳고 긴요한 것이지만, '옛것'에 대한 탐구의 많은 예비적 단계들이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불가피하고 필요하기까지 한 유치함, 오류, 한계, 실패 등을 미리 막아버리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 문화에 맞서는 다양한 탈식민적 실천에 영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오리엔탈리즘이 아닐까?'라는 또 다른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전통 사용(계승, 부활, 재창조 등)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와 '현대미술'이라는 또 다른 신화로 후퇴하는 것도, 아시아 문화에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과 똑같이 안타깝다. 물론 그것은 오리엔탈리즘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오해나 가치 전도의 문제다. 하지만 만약 극심한 열전과 냉전을 오간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통(또는 오래된 것)이 얼마나 극심하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강도 판단이 정확하다면, 김수영 시인 말대로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는 말의 함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김수영의 이 유명한 시구는 전통은 이미 오염될 대로 되었고 심지어 더럽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전통은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좋은 먹잇감이고, 전통이라는 말 자체가 현대로부터의 차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전통 귀신'은 확실히 여러 번 죽은 존재다. 그러나 더러워도 좋다는 말은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이겠다. 한국에서 자신의 전통 문화가 하나의 '박제' 문화나 일종의 외국문화라 하더라도 독을 약으로 만드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진다.

우리는 자오싱 아서 리우(Jawshing Arthur Liou)와 같은 작가가 불교의 체험이나 세계관을 과감하게 되살리는 것을 본다. 정은영이 판소리 춘향전을 성별정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조해준과 이경수가 우리 문화에서 다 죽어버린 도깨비를 깨울 때, 잊고 지냈던 풍부한 유산들이 덩달아 살아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또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많은 아시아 작가들은 전통문화나 종교적 주제에 대해 현대 아시아인이 지닐 만한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감정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과 현대의 분열이 가져오는 소외를 표현하는 만큼, 전통문화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에서 오는 역설적인 자유와 가능성도 다룬다. 쑤 위시엔(SU Yu-Hsien)과 노재운의 작업이 특히 그렇다. 수천 개의 방울로 만들어진 양혜규의 작품은 고대적 상상의 스케일에 접근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아피차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과 자크라왈 닐탐롱(Jakrawal NILTHAMRONG)의 필름은 아시아 '숭고'의 눈부신 삼라만상이다. 과학기술이 쫓아내려는 귀신들은 이렇게 '작가-영매(medium)'의 미디어 작품 속에서 부단히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되찾으려 한다.

공식 역사서술에서 누락된 고독한 유령을 불러와 그들의 한 맺힌 말을 경청한다는 뜻으로 '귀신'을 쓴다면, 이 전시 전체가 귀신전(鬼神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시에는 산과 섬과 숲이 여러 작품에 등장한다. 한국의 무속에서 흔히 산과 섬에 귀신이 많이 산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정기의 <금강산 만물상>은 애니미즘 산이며, 최민화의 야산은 원귀가 사는 스산하고도 몽환적인 무덤산이다. 배영환의 인왕산은 종교인과 정치세력과 등산객이 복잡하게 결합하는 장소이자, 그들이 뭐라던 별 상관없이 여전히 신성한 곳으로 묘사된다.



야오 루이중 YAO Jui-chung / 만세(萬歲) Long Live, 2011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 디스토피아를 부르는 주문 Spelling Dystopia, 2008-2009

산과 섬에 귀신이 많은 것은 번잡한 도시로부터 물러나 있는 문명의 '외부'이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산과 섬이야말로 아시아의 근현대를 통해 집단적 폭력을 집중적으로 치룬 내부 중의 내부다. 이런 역사-지리적 풍경은 타이완 작가인 리앙(Li Ang)의 소설 『눈에 보이는 귀신』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다. 리앙은 타이완의 여귀가 생전에 겪은 폭력을 원혼의 경험과 회상으로 자세히 묘사한다. 소설에서 네덜란드, 중국 대륙, 일본 등이 침탈한 타이완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설 속의 여귀는 사실 죽음을 통해서 공포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를 획득한다. 여귀의 체험은 영화가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시공간의 파편을 주워 모으는 벤야민적 의미로 '역사의 천사'의 또 다른 판이 된다. 여귀들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적어도 메시아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조각난 파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나간다.

이 소설 속의 타이완은 곧바로 식민과 냉전을 혹독히 치러온 섬들인 제주도, 오키나와, 인도네시아의 크고 작은 섬의 역사를 곧바로 떠올리게 한다. 미카일 카리키스(Mikhail Karikis)는 제주도 해녀에 대해 작업하면서, 해녀가 내는 기묘한 '숨비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여기저기 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만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숨비소리는 바다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에 벌어진 4.3 학살사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지리적 생각의 관습에서 항상 배제돼온 섬은 야오 루이중(YAO Jui-chung)의 녹도(綠島, Green Island), 니나 피셔와 마로엔 엘 사니(Nina Fischer & Maroan el Sani)의 하시마 섬(Hashima Island)에 의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 섬들은 귀신조차 살 수 없는 아시아 디스토피아의 완성판을 보여준다. 상영 쪽에 초대된 조슈아 오펜하이머(Joshua Oppenheimer)의 영화 <엑트 오브 킬링(The Act of Killing)>이 묘사하는 학살의 숲을,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귀신이 출몰하는 밀림과 공명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국경들에는 대개 높은 산과 강, 밀림이 있으며, 그 속에 귀신이 살고

노인들이 일하며 간첩이 암약한다.

‘간첩’이라는 모티브는 바로 그 폭력, 특히 식민지와 냉전을 거쳐 온 20세기 동아시아의 전쟁과 학살, 이념적 희생양, 독재와 감시의 특수한 상황들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인류학자 권현익이 말하는 것처럼, 냉전은 미소 사이의 패권 싸움이나 세력 균형이 포착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역의 정치적·문화적 비틀림으로 가득 찬 공간이자 시대다. 또 아시아에서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는 권력 주체와 이념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복잡하게 뒤얹혀 있다. 지금의 북한 체제는 일제강점기 없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항일 게릴라 활동을 국가 정체성의 뿌리로 간주하고 있다.

시대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식민과 냉전은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의 특수를 거치며 전후 부흥을 이루었으며, 한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도약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도 상황이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다. 네루다와 쉰원조차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에 고무되었고, 반동회의의 판·아시아니즘 정신은 냉전 질서에 의해 소멸되다시피 했다. 작가 최원준이 집어낸 것처럼 북한의 예술가집단은 아프리카 전역에 철거하기도 어려운 대형 국가 기념비를 세우고 독재자의 거대한 조상을 마구 건설해왔다.

특정한 시대와 국가를 넘어선 지역 사이의 영향 관계는 딘 큐 레(Din Q. Lê)의 작품에서 핵심적인 주제다. 딘 큐 레는 알제리 해방운동과 베트남의 탈식민운동의 연계를 회고한다. 그는 알제리 래퍼의 음악과 관객 사이에 아시아 풍의 프랑스 가구를 높이 쌓아 올렸다. 가수(마이크가 대신하고 있는)와 관객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아시아 풍의 프랑스 가구(작품 <바리케이드>)는 베트남과 알제리 사이에 있었던 한때의 국제적 연대를 조롱하는, 그런 동시대의 정치문화 상황을 비평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바리케이드는 적을 막는 물리적 방해물이자 동시에 상대방의 노래를 확장해 들려주는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의 제안에 따르면 단절의 장소가 곧 소통의 매체이기도 한 것이다.

복수(複數)로서의 ‘냉전들’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냉전은 베를린 장벽의 해체나 글로벌 자본주의의 세계 제패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냉전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프로펠러 그룹(The Propeller Group)이 묘사하는 것처럼, 냉전은 이념 대립에서 점점 멀어져 일종의 ‘냉전 극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필라 마타 듀폰트(Pilar Mata Dupont)는 남성 중심의 ‘분단/통일’이라는 거대 상징을 여성의 섬세한 심리극으로 전복한다. 이 작품의 핵심은 단순히 여성 한 쌍으로 남성 한 쌍을 대체하는 기호 뒤집기가 아니라, 통일을 상징하는 포옹이 감동을 상실한 어색하고도 심란한 표정으로 변하는 순간에 있다. 여기서 ‘냉전 극장’은 혐오감이나 사랑과 같은 깊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며, 가벼운 즐겁거나 손익계산의 기표로 역사적 연원들로부터 갑자기 끊어진다. 한때 베트콩의 게릴라 근거지였지만 지금은 관광지가 된 쿠치 터널(Cu Chi Tunnels) 위에서 서양의 관광객이 쏘아대는 총소리는 정확히 그 단절의 지표다.

요네다 토모코(Yoneda Tomoko)가 주의를 기울인 러시아 스파이 조르게 사건, 김상돈이 찍은 기지촌 여성의 공동묘지, 제임스 홍(James T. Hong)이 추적하는 일본의 화학무기 사용 등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다. 작가들은 각종 ‘주술·기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냉철한 기록과 자료를 제시하며 점차 흐릿해지는 기억으로부터, 탈식민과 탈냉전의 현재 의미를 복원한다. 이때 복원은 리와인딩과 포워딩의 동시 진행이다. 사실 모든 복원 자체가 원본을 상상하되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겠지만, 작가들의 복원은 오히려 미래를 상상하며 과거를 복원하는 것에 가깝다.

이 주제는 동시에 20세기의 급진주의와 혁명,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열정, 희생, 모험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에릭 보들레르(Eric Beaudelaire)가 일본 적군파의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가담에 주목했던 것, 제로 지겐(Zero Dimension)의 카토 요시히로(Kato Yoshihiro)가 불교적인 ‘의식’과 거리의 아방가르드를 혼합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요안나 롬바르드(Joanna Lombard)가 유럽의 급진적 공동체운동의 기억을 재연하는



딘 큐 레 Dinh Q. Lê / 바리케이드 *Barricade*, 2014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 /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2011



필라 마타 듀폰트 Pilar Mata Dupont / 이상적인 포옹 *The Embrace*, 2013

것은, 내면의 총체적인 상품화를 경험하는 경쟁 사회의 ‘개인들’에게 공동체적 재기의 순간을 엿보도록, 아니면 적어도 현대의 소시민적 소심함을 마주보도록 종용한다. 이런 하드코어 정치-예술운동의 유산들은 ‘소프트 아방가르드’가 만연해 있는 현대미술, 특히 아시아 현대미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점을 첨언해두고 싶다. 사실 아시아 오리엔탈리즘은 대개 아방가르드의 외연을 취한다는 면에서, ‘앞으로 전진’을 내세우는 아리에가르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가치의 음화(negative)를 특히 에릭 보들레르의 검은 이미지들에서 문자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각도를 조금씩 틀어야만 검은 실크스크린에 새겨진 일본의 어떤 거북한 진실(‘테러리즘’일 수도 ‘혁명적 행동’일 수도 있는)의 순간을 아주 잠깐 볼 수 있다.

영화 속의 스파이는 매력적이지만, ‘간첩’은 무섭다. 신(神)은 받아들여야 하나 귀(鬼)는 멀리해야 한다. 적어도 유교사회에서 노인은 공경해야 마땅한 존재지만, 사회 속의 할머니는 대대적인 젊음의 찬양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장이 허락된다면, 이들은 모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간첩은 비밀과 합체된 인격이고, 귀신은 전해 들은 소문이고, 할머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과거를 품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가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대체로 쉽게 보이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보면 안 된다. 그들/그녀들은 침묵의 기술자이자, 고급 정보의 소유자다. 그들은 모두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경계인’이며, 다양한 해석으로 채워지고 재평가될 ‘신화적’ 존재다.

이 전시와 상영에 할머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화 <밀양전>에 등장하는 목숨을 건 할머니의 투쟁, 김인회의 1980년대 굿 기록영상에서 보이는 할머니의 놀이, 미카일 카리키스가 기록한 해녀의 노동과 일상, 최상일 라디오 프로듀서가 김지연과 협업한 두메산골 할머니의 소리가 있다. 할머니가 ‘여성과 시간’을 생각하는 계기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면, 귀신과 간첩의 시대를 견뎌온 증인으로서의 할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기억의 보고다. 그녀의 ‘배제된’ 육체를 던져 공권력에 저항할 때, 할머니는 경찰을 난처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특이한 정치미학의 주체가 된다. 전설의 ‘마고할미’와 같은 거인 할머니나, ‘산해경’과 ‘요지연도’에 등장하는 서왕모(西王母)는 초능력 할머니로, 마음만 먹는다면 섬과 육지를 거뜰히 한걸음에 건너간다. 이것은 노재운의 지팡이가 출처로 삼는 세계다.

한국에서 ‘옛 할머니’는 자손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이미지를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다. 근대에 들어 기도의 수동성과 초월성에 대한 유물론자의 대대적인 비판을 거쳐왔지만, 한국의 심산유곡에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 대부분은 여성들이며, 아줌마 할머니들이다. 아마도 ‘할머니’는 권력에 가장 무력한 존재이겠지만, ‘옛 할머니’가 표상하는 인내와 연민은 바로 그 권력을 윤리적으로 능가하는 능동적인 가치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최승훈+박선민의 검은 비닐봉지가 그 약한 떨림 속에서 말하는 바는 그런 무력함의 역설적인 힘으로 보인다. 오티 위다사리(Otty Widasari)의 비디오 속의 무슬림 여성이 평화로운 공원을 혼자 가로질러 도달하는 폭포도 그 힘의 진원지다.

극장 상영에 초대된 영화 중에서도 무력한 이가 독점하는 진리를 다루는 작품이 많다. 윤홍길의 소설 『장마』를 원작으로 한 유현목 감독의 동명 영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귀신, 간첩, 할머니의 관계를 다룬다. 마을은 좌우 대립에 휩싸이며, 손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할머니의 예언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한다. 결국 할머니의 예언대로 인민군에 살해당한 손자는 구렁이로 환생해 고향 마을로 찾아온다. 영화에서 긴 시간에 대한 체감과 미래에 대한 예지력은 오직 할머니만이 가지고 있다.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 앉아 한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변화하는 기후와 생명에 대한 감각은 할머니의 몸과 혼잣말 속에 살아있다. 할머니의 한탄은 따라서 혐오감으로 분주한 주변인물(과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사랑의 단순성이며, 그녀의 부동성은 단지 수동적인 웅크림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다.

이 전시는 당연히 ‘귀신, 간첩, 할머니’만으로 축소될 수 없다. 달리 보면 이 비엔날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근대성 자체를 포괄적으로 돌아보고, 국가 중심의 딱딱한 세계관이나 자유주의적 ‘이동성’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재고하는 자리다. 이 전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세계와 아시아를 ‘민족-국가’의 틀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제안한다. 아시아는 아시아를 넘어서는 지방과 지방 사이의 의외로 독특한 관계들로 넘쳐난다.

자주 인용되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브리콜라주’ 방법처럼, 아시아는 시간과 시각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변형의 과정 그 자체다. 서구의 상대 개념도, 한마디로 정의 가능한 대상도 아니다. 중국의 석학 왕후이(Wang Hui)는 전후 일본의 사상가 다케우치 요시미(Takeuchi Yoshimi)의 ‘서구의 퇴각기’ 개념을 되살려, 아시아가 민주주의나 평등과 같은 서구 근대의 긍정적 가치를 오히려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힌다. 왕후이는 이를 ‘근대성에 맞서는 근대성’이라는 형용 모순으로 표현한다. 근대성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아시아는 ‘기이한 근대성들’로 넘쳐나는 대단한 복잡성을 정당하게 획득하게 된다.

마할디카 유다(Mahardika Yudha), 정서영, 쩡응 쑹 퉁(Truong Cong Tung), 그리고 특히 바심 막디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부조리나 외부 공간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화(modernization)’가 언제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좌절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부단한 미끄러짐을 통해, 새로운 근대—게으름을 존중하는(마할디카 유다), 우주에 대한 느낌이 가능한(자오싱 아서 리우, 양혜규, 바심 막디), 전통과 화해하는(배영환, 쑤 위시엔, 김수남), 생명 친화성을 회복하는(오티 위다사리, 쩡응 쑹 퉁, 민정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근대—를 구상할 수 있는 틈이 열린다. 양혜규가 바닥에 만든 궤도의 한 끝에 설치된 <혼천전도>는 동아시아의 화법으로 그린 서양의 지식인데, 나는 이 그림이 자와 콤팩스나 컴퓨터로 그린 그림보다 우주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궤도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주재환의 작은 그림 쪽으로도 향한다. 주재환의 달은 빛을 잃어간다고 옆에 쓰여 있지만 여전히 밝게 그려져 있다. 양혜규의 번쩍이는



마할디카 유다 Mahardika Yudha / 선라이즈 자이브 Sunrise Jive, 2005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 할머니 라운지—목소리 저편 Grandmothers' Lounge: From the Other Side of Voices, 2014 /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달과 행성 궤도가 의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끝없이 확장되고 운동하는
성좌(constalation)일 것이다.

우주 한 구석의 세계는 2011년에 후쿠시마 대지진을 겪었고, 올해는
세월호가 침몰해 수많은 젊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그 고통의 목록은
끝이 없고, 그 목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한국의 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조건
자체가 망각에 기초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때 필요한
존재가 귀신, 간첩, 할머니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그들/그녀들을
단순히 찬양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전시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는 귀신,
간첩, 할머니를 불러 그들이 독점하고 있거나,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삼키고 있는 비밀의 디테일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미디어’로 나누려는 자다.

‘미디어 아티스트’ 리나 셀란더가 추적하는 사진의 기원은 방사능과 관련이
있다. 셴 스나이더가 ‘평면화’시킨 텔레비전의 저 희박한 의미를 보면,
여전히 작가들은 ‘미디어아트’를 매스미디어와 가치 경쟁하는 자리에
집요하게 재배치한다. 미디어 기술의 진가는 nil바 귀레쉬(Nilbar Güreş)
가 묘사하는 <야외 전화 부스(Open Phone Booth)>의 장면에서 극적으로
진술된다. 쿠르드 마을의 산꼭대기에서나 가까스로 ‘터지는’ 휴대폰의
가치는, 조금만 소리가 멀고 잠시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울화통을 터뜨리는
요즘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미디어’인지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미디어는
터짐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기다림이다. 미디어에 대한 이런 깊은 사유들은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서 터져야 제격이다.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nil바
귀레쉬의 비디오 작품보다 천에 수를 놓아 한 땀 한 땀 만든 <야외 전화 부스
2(Open Phone Booth 2)>가 더 좋다. 여기서는 뭔가 보면 볼수록 생겨나는
진실의 단계들과 끝까지 명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해져서는
안 될 숨겨진 뭔가가 있다. 나는 전시된 작품을 어떤 맥락 속에 넣어 나름대로
분명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작가들이 사용하는 주문,
암호, 방언에 남아 있을 것이다.

출전 및 옮긴이

p.27

「대상의 해방과 근대에 대한 물음」

글: 왕후이, 옮긴이: 송인재

출전: 미발표 원고

「对象的解放与对现代的质询」에서 부분 발췌.

p.39

「귀신, 여자 귀신, 빙의」

글: 리양, 옮긴이: 김태성

p.49

「친근한 이방인」

글: 권헌익, 옮긴이: 이재희

p.55

「나부아의 기억: '원시' 프로젝트에 관한 노트」

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옮긴이: 김정혜

출전: Apichatpong Weerasethakul,

"Memory of Nabua:

A Note on the Primitive Project,"

Apichatpong Weerasethakul

(Austrian Film Museum Books, 2009)

p.73

「의심을 찬양함」

글: 베르톨트 브레히트, 옮긴이: 김광규

출전: 베르톨트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 김광규 역, 한마당, 1985

p.91

「벨로루시에서의 불복종」

「리서치 기반 미술」에 관한 자기 취조」

글: 셴 스나이더, 옮긴이: 김정혜

Sean Snyder, Disobedience in Byelorussia:

Self-Interrogation on "Research-Based Art,"

e-flux journal issue 5 (2009. 4)

p.115

「이상한 할머니들」

출전: 김용언, «아트인컬처»

2014년 8월호, (주)에이엠아트, 2014

p.153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출전: 이응우, «아트인컬처»

2014년 8월호, (주)에이엠아트, 2014

p.171

「시작도 끝도 없다」

글: 다지마 마사키, 옮긴이: 윤여일

출전: 쓰루미 쉰스케 외, 윤여일 역

『사상으로서의 3·11』, 그린비, 2012

p.181

「사건의 때」

글: 고이즈미 요시유키, 옮긴이: 윤여일

출전: 쓰루미 쉰스케 외, 윤여일 역

『사상으로서의 3·11』, 그린비, 2012

p.191

「애도의 차원들」

출전: 문강형준, «아트인컬처»

2014년 7월호, (주)에이엠아트, 2014

p.201

「파경」

출전: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1995

글쓴이 소개	김금화	김용언	다지마 마사키(田島正樹)
공선옥	1931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다. 12세 때 무병을 앓은 후 17세 때 큰무당이던 외할머니 김천일에게 내림굿을 받았으며, 현역 무당들을 따라다니면서 굿 현장의 경험을 쌓았다. 2년 뒤 혼자 대동굿을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독립했다. 20세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으로 피난하여 활동하다가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 움직임 속에서도 1965년 활동 무대를 서울로 옮겼다. 196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연평노래’와 배연신공 공연으로 개인상을 받으면서 신문·방송 등 언론에 처음 소개됐다.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한 미국 공연 이후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 줄곧 나라굿을 도맡아왔다. 이후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 초청받아 순회공연과 강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굿이 지닌 종교적·예술적·문화적 내용과 가치를 널리 알려왔다. 레비 스트로스가 한국에 왔을 때 특별히 참관한 굿이 김금화의 만수대타굿이었다. 1985년 서해안 배연신공 및 대동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1995년 65세 때 한중수교 3주년 기념행사에서 개막공연을 했으며, 호암아트홀에서 <김금화 대동굿>을 공연하였다. 2004년 백두산 천지에서의 대동굿, 독일 베를린에서의 윤이상 선생을 위한 진혼굿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굿 공연을 선보였다. 2005년 강화도에 건립한 서해안 풍어굿 전수관 ‘금화당’에서 서해안 풍어굿의 명맥을 이으며, 후학 양성과 한국 무속문화 전수에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김금화의 무가집』(1995),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1995), 『만신 김금화』(2014)가 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 비교문학과 협동과정을 졸업했다. 영화 전문지 «키노», «필름 2.0», «씨네21»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장르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의 수석 에디터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서평 섹션 ‘프레시안 books’ 팀장을 거쳐 현재는 미스터리 소설을 전문으로 다루게 될 새로운 매체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노라 에프론의 『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와 마이클 더다의 『코난 도일을 읽는 밤』(2013), 지은 책으로는 『범죄소설』(2012)과 『다시 동화를 읽는다면』(공저, 2014)이 있다.	1950년 생. 철학자. 언어철학에 기반해 형이상학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근대의 정치철학과 예술을 연구하며 라캉의 정신분석적 통찰을 끌어와 연구활동에 나서고 있다. 저서로는 『정의의 철학』, 『신학·정치론』 등이 있다.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중앙대와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에서 영문학/문화이론 박사과정을 마쳤다. ‘파국’, ‘광신’, ‘괴물’ 등 현재의 질서와 불화하는 이질적 담론들을 바탕으로 문화 텍스트를 분석하며 한국사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이며, «한겨레» 토요일에 ‘크리틱’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2012), 『파국의 지형학』(2011), 『영어를 잘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2009), 『사회를 말하는 사회』(공저, 2014), 『아이돌』(공저, 2011)이 있고, 역서로 『광신』(2013), 『권력을 이긴 사람들』(2008), 『루이비통이 된 푸코』(공역, 2012)가 있다.	
권현익	권현익은 사회인류학을 전공했다. 현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의 석좌교수이다. 런던정경대학에서 재직했었고, 서울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있다. 시베리아와 베트남에서 현지조사를 했고 근래에는 한국전쟁의 현재적 역사에도 관심을 두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학살, 그 이후』(2006), 『베트남 전쟁의 영혼』(2013), 『또 하나의 냉전』(2013), 『극장국가 북한』(공저, 2013) 등이 있다.	리양(李昂)	박노자(朴露子)
		1952년생인 대만의 여성 작가 리양은 사회생활과 문학 창작 속에 묘하게 엮이는 성과 정치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세계 여성문학에 공헌하였다. 그녀는 16세에 첫 단편 ‘꽃피는 계절’의 출간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여 20여 편의 소설 및 단편선집을 출판하였다. 1983년 출판된 중편소설 『남편을 죽이다』로 리양은 대만의 중요 현대작가 대열에 올라섰다. 다수의 대표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출판되고, 영화 및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2004년에 리양은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예술문학기사훈장’을 수상하였다. 초기 작품에서는 성별정치적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대만의 계엄령 해제(1987) 이후에는 역사적 서사의 재구성 속에 성별 및 정치 이슈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연구하였다. 1990년대의 4개의 대표적 소설—『미로의 정원』(1990), 『베이강의 향로에는 누구나 향을 쫓는다』(1997), 『자서전: 소설』(2000), 『눈에 보이는 귀신』(2003)—로 인하여 리양은 포스트식민지 시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성별정치 이슈를 결합하여 대만의 여성문제를 연구하여 문학 장르 중 성별 이슈에 관한 창작에 새 지평을 열었다.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 Vladimir Tikhonov)는 구 소련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1973년 생이며,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한국 고대사로 석사학위 취득했으며, 동일한 전공으로 1996년에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러시아 국립인문대 비상근강사(1996년)를 거쳐 경희대 강의전임강사(1997~2000), 오슬로대 부교수(2000~2006)를 역임했으며, 현재 오슬로대 정교수(2006년 이후)를 역임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초기 민족주의 사상사, 한국 근현대 불교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당신들의 대한민국 1』(2011), 『나를 배반한 역사』(2003), 『우승열패의 신화』(2005),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2009),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2012), 『좌파하라!』(2012) 등이 있다.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 노동당의 당원이다.

박찬경	션 스나이더(Sean Snyder)	고이즈미 요시유키(小泉義之)	조한혜정
1965년 생. 박찬경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는 냉전, 한국의 전통 종교문화, ‘미디어 중심의 기억’, ‘역사의 재구성’ 등을 주제로 다뤘었다. 주요 작업으로는 <세트>(2000), <파워통로> (2004), <비행>(2005), <신도안> (2008), <광명천지>(2010),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2011), <파란만장>(2011, 박찬욱 공동 연출), <만신>(2013) 등이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암스테르담의 드 아펠 아트센터, 로스앤젤레스의 레드캣 갤러리, 프랑크푸르트의 쿤스트페어라인,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 등 여러 곳에서 작품이 소개된 바 있다.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4),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2011),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2011)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의 예술감독을 맡고있다.	1972년 생. 베를린에서 활동. 셀 스나이더는 글로벌 미디어 안에서 정보와 이미지의 흐름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리서치 기반 작가이다. 스나이더는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비엔나 시세션, 프랑크푸르트 포트쿠스, 암스테르담 드 아펠,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 필론 아트 어소시에이션 등에서 열린 개인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져 왔다.	1954년 생. 철학자. 주로 데카르트, 들뢰즈, 레비나스를 연구하고 있다. 만화와 서브컬처에 대한 평론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윤리』, 『병의 철학』, 『생식의 철학』 등이 있다.	문화인류학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자 비상임 센터장).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에서 문화인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에 귀국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강의, 연구, 사회운동, 집필 활동을 해왔다. 역사와 생활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분석적인 시대 탐구 작업, 특히 창의적 공유시대로서의 실천적 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다. 1980년대 초반부터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또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을 해왔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서울시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일명 하자센터, 1999년)를 설립하였다. 갈수록 난감해지는 시대의 해법으로 최근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2012년 이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 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으로 돕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1988), 『탈식민지 시대의 글읽기와 읽기 1-3권』(1992, 1994),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1996),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1998),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2000), 『다시 마을이다』(2007) 등이 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왕후이(汪暉)	이용우	한선희
독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극작가(1898~1956). 희곡 <바알 신(Baal)>(1919)과 <도시의 정글>(1923), 풍부한 환상과 냉정한 객관성,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도발을 결집인 서정시 <가정용 설교집(Die Hauspostille)> (1926)으로 주목을 받았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 덴마크로 망명하여 반(反)파시즘 활동을 계속하면서 <제3제국의 공포와 빈곤(Furcht und Elend des Dritten Reiches)>(1938)과 <카라르 부인의 소총(Die Gewehre der Frau Carrar)>(1939) 등의 희곡을 집필하였다. 1940년에는 핀란드로, 다시 1년 뒤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대표작인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1939), <푼틸라 씨와 그의 하인 마티(Herr Puntila und sein Knecht Matti)>(1941), <코카서스 백토의 테(Der Kaukasische Kreidekreis)>(1945) 등을 집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메카시즘이 활개를 치던 1948년에 스위스로 갔다가 그곳에서 <안티고네(Antigone)>(1948)와 <파리 코원의 나날(Die Tage der Commune)>(1948)을 썼으며, 당시까지의 그의 연극론을 정리해 <소사고 원리>를 출간했다.	1959년 장우성 양저우 출생. 이른바 중국 ‘신좌파’의 이론적 리더로 알려진 저명한 학자이다. 현재 칭화 대학 중문학과 교수이자, 같은 대학 인문 · 사회과학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3년부터 제12기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6개월 정도를 임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1978년 양저우사범대학에 입학했고, 난징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루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 홍콩 중문 대학, 베를린 고등연구소, 볼로냐 대학, 컬럼비아 대학, 도쿄 대학 등에서 연구원과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6년부터 『독서(讀書)』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독서』를 중국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잡지로 성장시켰다. 최근에는 칭화 대학 인문 · 사회과학고등연구소를 기반으로 중국의 정치개혁 담론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근본적 재인식을 목표로 하여 ‘지역연구’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망에 반항하라: 루쉰과 그의 문학세계』(1990), 『죽은 불 다시 살아나』(2000), 『중국현대사상의 흥기』(2005), 『아시아적 시야: 중국 역사의 서술』(2010) 등의 저작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미디어문화 역사연구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미디어문화연구, 맥길대 예술사 및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코넬대 아시아학과와 인문사회연구소(Society for the Humanities) 객원교수(2010~2013) 및 동경대 정보학관 특별 연구원 역임(2006~2007). 현재 레이던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에서 비판적 미디어문화연구, 냉전기 동아시아 소리 및 영상문화, 후식민적 역사서술방식과 번역의 문제, 집단 무의식과 트라우마, 프로파간다로서의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대중음악을 통해 식민지식의 연속성과 청각적 근대성의 역사문화적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볼 단행본을 집필 중이다.	한선희는 서울의 영화제작자이자 연구자이다. 극장용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2011, 정재은 감독) <만신>(2013, 박찬경 감독)의 프로듀서로 일했으며 <망원동 인공위성>(2013, 김형주 감독)을 제작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채널에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바다의 만신>(2012)의 프로듀서로 일했다.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개발하면서 글을 쓰고 책과 출판물을 편집해 왔으며, <만신> 제작을 토대로 최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김수남 김인희의 굿 다큐멘터리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 실린 이미지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귀신, 간첩, 할머니'의 전시 장면이다.

8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시티서울>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국제비엔날레이다.
총 42명(팀)의 미술작품과 42편의 영화를 초대하였고
2014년 9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동시에 열렸다.

전시된 각각의 작품은 별도의 책자와
www.mediacityseoul.kr에서 사진과 글, 음성으로 접할 수 있다.

이상순 만신, 서울새남굿
<미디어시티서울> 2014 개막 행사



[작] 양혜규 Haegue Yang / 소리 나는 보름달—중량 중형 #2 *Sonic Full Moon—Medium Regular #2*, 2014
 [우] 주재환 Joo Jae-Hwan / 건곤실색 일월무광(乾坤失色 日月無光) *The World Has Lost Its Colors; The Sun and the Moon Have Lost Their Light*, 1994



양혜규 Haegue Yang / [작] 소리 나는 보름달—중량 중형 #2 *Sonic Full Moon—Medium Regular #2*, 2014
 [우] 소리 나는 춤—이복 언니 *Sonic Dance—Half Sister*, 2014



타무라 유이치로 Tamura Yuichiro / 세와료리스크비초(世話料理鱸包丁) *Suzuki Knife, Social Cooking*, 2014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야오 루이중 YAO Jui-chung / [작] 푸르스름한 무엇 *Something Blue*, 1998-2009 [우] 만만세(萬萬歲) *Long Long Live*, 2013





[작] 야오 루이중 YAO Jui-chung / 인간성의 이면 *Beyond Humanity*, 1992-2008
 [우] 바심 막디 Basim Magdy / 시간은 침몰한 배처럼 당신을 향해 웃는다 *Time Laughs Back at You like a Sunken Ship*, 2012



[작] 야오 루이중 YAO Jui-chung / 인간성의 이면 *Beyond Humanity*, 1992-2008
 [우] 작자미상 Unknown Artist / 혼천전도(渾天全圖) *The Complete Map of the Celestial Sphere (Hon-cheon-jeon-do)*,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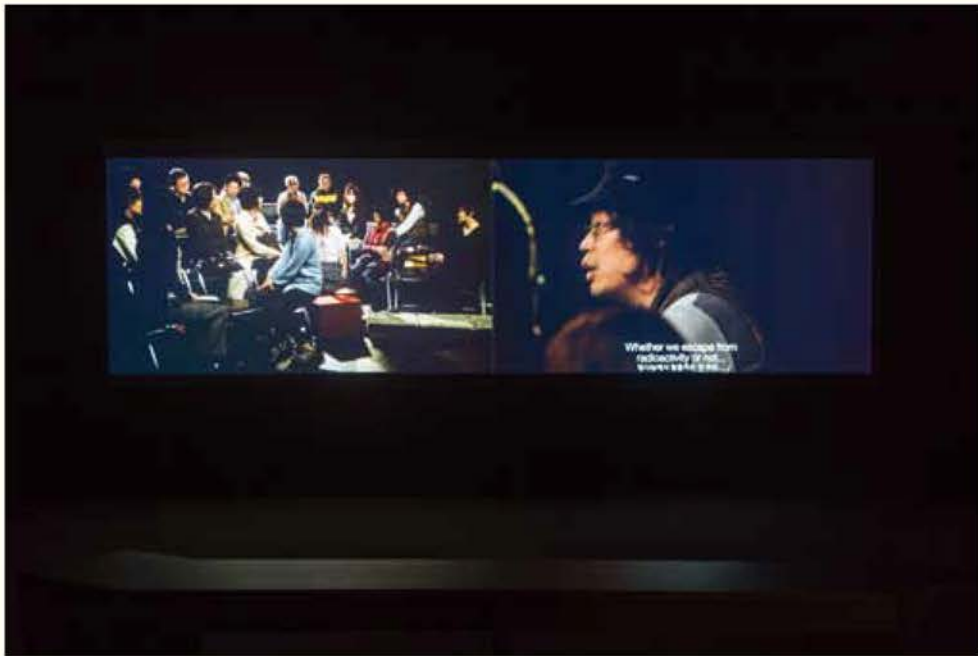
바심 막디 Basim Magdy / 모든 미묘한 몸짓 *Every Subtle Gesture*, 2012-ongoing /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Nilbar Güreş / 야외 전화 부스 *Open Phone Booth*, 2011



요네다 토모코 Yoneda Tomoko / 평행하는 타인의 삶—조르게 간첩조직과의 조우 *The Parallel Lives of Others—Encountering with Sorge Spy Ring*, 2008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 공포 속에 산다—3·11 이후 *I Live in Fear—After March 11*, 2013



[위, 아래] 리나 셀란더 Lina Selander / 레닌의 램프는 농부의 오두막에서 빛난다 *Lenin's Lamp Glows in the Peasant's Hut*, 2011



요안나 롬바르드 Joanna Lombard / 궤도상의 재연 *Orbital Re-enactments*, 2010



닐바 귀레쉬 Nilbar Güreş / 야외 전화 부스-2 *Open Phone Booth-2*, 2014



바심 막디 Basim Magdy / 구겨진 것 *The Dent*, 2014 / Commissioned by the Abraaj Group Art Prize, 2014



야오 루이중 YAO Jui-chung / 인간성의 이면 *Beyond Humanity*, 1992-2008



민정기 Min Joung-Ki / [작] 금강산 만물상 *Manmulsang Rocks on Mt. Geumgang*, 2014
 [우] 금강산 비봉폭포 *Bibong Fall at the Mt. Geumgang*, 1999



자오싱 야서 리우 Jawshing Arthur Liou / 코라 *Kora*, 2011-2012



[위, 아래] 배영환 Bae Young-whan / 오토누미나—만년 동안의 잠, 인왕산 선바위 *Autonumina—Ten Thousand Years' Sleep, Seonbawi Inwang Mountain*, 2010-2014



노재운 Rho Jae Oon / 지팡이 Wand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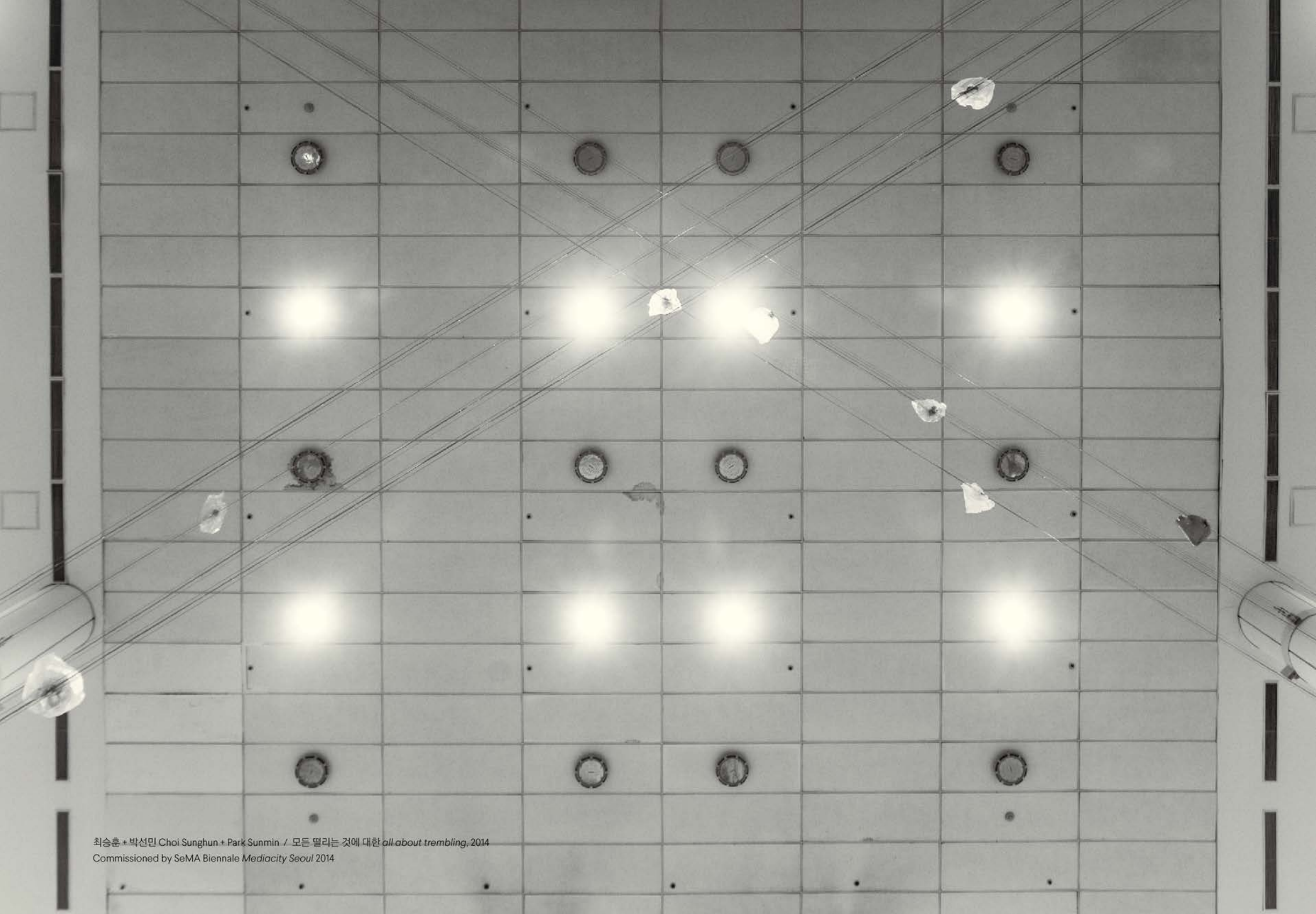
미카일 카리키스 Mikhail Karikis / 소리 내는 아이들 Children of Unquiet, 2013-2014



제로지겐 / 카토 요시히로 Zero Dimension / Kato Yoshihiro / [작] 제로지겐 아카이브 Zero Dimension Archive, 2014
[우] 제로지겐 기록영상 Zero Dimension Documentary Film, November 1969



나이트 마사토시 Naito Masatoshi / 바 바 바쿠하츠(할머니 폭발) Ba Ba Bakuatsu (Grandma Explosion), 1988



최승훈 + 박선민 Choi Sunghun + Park Sunmin / 모든 떨리는 것에 대한 *all about trembling*, 2014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최승훈 + 박선민 Choi Sunghun + Park Sunmin / 모든 떨리는 것에 대한 *all about trembling*, 2014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양혜규 Haegye Yang / 소리 나는 돌림 타원-놋쇠 도금 #13, #14, #15 *Sonic Rotating Oval—Brass Plated* #13, #14, #15, 2014
소리 나는 돌림 도형 E-놋쇠 도금 #23 *Sonic Rotating Geometry Type E* #23, 2014



[위, 아래]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Le Nouveau Monde Amoureux*, 2014



[작] 필라 마타 듀폰트 Pilar Mata Dupont / 이상적인 포옹 *The Embrace*, 2013
 [우] 최진욱 Choi Gene-uk / 북한 A, B, *North Korea A, B*, 2000



[작] 호신평 Ho Sin Tung / 홍콩 인터-비보스 영화제 *Hong Kong Inter-vivos Film Festival*, 2012
 [우] 오티 위다사리 Otty Widasari / 자발 하드로, 자발 알 자나(푸르른 산, 천상의 산) *Jabal Hadroh, Jabal Al Jannah* (Green Mountain, Heaven Mountain), 2013



[작] 오티 위다사리 Otty Widasari / 자발 하드로, 자발 알 자나(푸르른 산, 천상의 산) *Jabal Hadroh, Jabal Al Jannah* (Green Mountain, Heaven Mountain), 2013
 [우] 제시 존스 Jesse Jones / 인간의 곤경 *The Predicament of Man*, 2010



쑤 위시엔 SU Yu-Hsien / 화산치앙 *Hua-Shan-Qiang*, 2013



쓰엉 쑹 퉁 Truong Cong Tung / 땅 한 움큼의 여정 *Journey of a Piece of Soil*, 2014



쓰엉 쑹 퉁 Truong Cong Tung / [작] 땅 한 움큼의 여정 *Journey of a Piece of Soil*, 2014
[우] 요술 정원 *Magical Garden*, 2012-2014



[위, 아래] 프로펠러 그룹 The Propeller Group / 쿠치의 게릴라들 *The Guerrillas of Cu Chi*, 2012



[위, 아래]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 /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2011



[위, 아래] 정서영 CHUNG Seoyoung / 일시적으로 모은 오래된 문제들 *Old Problems Gathered in a Temporary Manner, 2014* /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위, 아래] 최원준 CHE Onejoon /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Mansudae Master Class*, 2014
Archive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위, 아래] 호신통 Ho Sin Tung / 홍콩 인터-비보스 영화제 *Hong Kong Inter-vivos Film Festival*, 2012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 디스토피아를 부르는 주문 *Spelling Dystopia*, 2008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 할머니 라운지—목소리 저편 *Grandmothers' Lounge: From the Other Side of Voices*, 2014 /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자크라왈 닐탐롱 Jakrawi NILTHAMRONG / 인트랜짓 *INTRASIT*, 2013



미카일 카리키스 Mikhail Karikis / 해녀 *SeaWomen*, 2012



노재운 Rho Jae Oon / [좌-우] 항성시 3번_삼인문넌 *Stardate s#.03_Three Men Questioning Time*, 2011 /
항성시 2번_파르티잔 *Stardate s#.02_Partisan*, 2011 / 항성시 1번_항성시 *Stardate s#.01_Stardate*, 2009



호신탕 Ho Sin Tung / 베일에 가려진 알팍한 세상 *Thin Veiled World*, 2014 /
미지의 닫힌 원 *A Closed Circle of Unknowns*, 2014 /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